완도군 '전복 데이'·'미역 데이' 선포

〈매년 삼복날〉 〈매년 어버이날〉

첫 지역 특산품 '데이 마케팅'…6일 서울서 기념행사

가수 홍경민 전복 명예면장 위촉·양계협회와 판촉 협약

완도군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특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데이 마케팅'(Day-Marketing)을 추진한다. '데이 마케팅'은 특정 기념일을 이용해 수요를 창출하는 마케팅기법이다.

완도군은 지역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해조류 등 웰빙식품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삼복(三伏) 날은 '전복 데이',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은 '미역 데이'로 선포한다.

완도군은 말복 하루 전인 6일 오전 11시 과천 서울 경마공원 컨벤션홀에서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국회의원, 수도권지역 향우회원, 완도군 특산품명예면장, 전복 생산자, 대한양계협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전복 소비촉진 붐을 조성하기 위한 '전복 데이' 선포식을 갖는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전복 명예면장 위촉과 함께 전복데이 선포, 전복해조류 비빔밥 시식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방송인 오정혜씨 사회로 진행하는 선포식에서는 인기가수 홍경민씨를 전복명예면장으로 위촉한다.

군은 조류인플루엔자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의 시름을 덜고 함께 상생하기 위해 대한양계협회와 전복과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전복유통 판촉 협약도 체결한다.

군은 지역특산품 판촉과 이미지 홍보를 위해 사회 저명인사와 인기연예인들을 전복을 비롯한 다시마, 미역 등 12개 특산품 명칭을 부여한 명예면장 제도를 운영해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완도전복

지금까지 MC 송해, 연기자 손현주, 체육인 홍수환 등 422명의 전복 명예면장을 비롯해 전국에 1800여 명의 명예면장이 완도 서포터즈로 활동중이다.

군은 매년 복날에 무더위를 이기고 지친 몸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보양식을 찾는 국민들에게 전복 먹기를 권장하며 '전복 데이'로 지정했다.

전복도 크기에 따라 소복, 중복, 대복으로 분류하고 있어 삼복(초복, 중복, 말복)과 연계시키는 홍보 카피문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매년 어버이날을 '미역 데이'로 선포할 계획이다.

군은 매년 어버이날을 '미역 데이'로 선포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역 등 해조류 먹는 날로 분위기를 조성해 해조류 소비촉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복과 미역 등 지역 특산품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데이 마케팅 추진으로 특수 창출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복은 청정해역에서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웰빙보양 식품으로 중국에서는 상어지느러미, 해삼과 함께 '바다의 삼보(三寶)'로 꼽힌다. 완도군은 최근 '전복해조류 비빔밥'과 '전복 물회'를 여름철 별미 음식으로 개발하기도 했다.

완도군 전체 전복양식장 면적은 여의도의 11배에 달하는 3161ha이다. 전국의 80%인 연간 7400t을 생산해 4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전북 소식

정읍시의회, 동진강 저류지 철회 촉구

농경지 73만9000㎡ 편입

"농민 생존권 위협" 주장

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사진)는 지난 31일 임시회를 열고 정부가 국가 하천 종합 정비계획의 하나로 정읍 신태인 인근의 동진강변에 저류지(貯溜池)를 조성하는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시의회는 김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이 사업으로 73만9000여㎡의 막대한 농경지가 강변 저류지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사업 목적으로 내세운 홍수 대비는 하천 준설과 환경 정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읍시의회는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전국의 농경지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국가 존립과 식량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사업은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동진강의 신태인 대교에서 정우교 구간의 강변 농지에 생태습지, 체육시설, 주차장이 포함된 저류지를 만들려는 것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부안 위도항, 해수부 개발사업 선정

내년부터 200억 투입…낚시 관광형 다기능 어항 조성

부안군 위도항이 해양수산부의 '낚시 관광형 어항 개발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수산업 중심의 국가 어항을 관광·휴식 공간을 갖춘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해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어민의 소득을 높이려는 것이다.

위도항은 2016년부터 5년동안 200억원이 투입돼 낚시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어항으로 개발된다.

위도항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개발 잠재력이 커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부안군은 설명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인근의 새만금과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묶는 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해 전국 제일의 해양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태풍 '나크리' 비바람에 전남 축제 줄줄이 '휘청'

목포·신안·장흥 등 일정 변경·탄력 운영

第12호 태풍 '나크리'가 서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지난 주말에 열릴 예정이던 목포 해양문화축제와 신안 민어축제가 연기됐다.

장흥군도 '제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1~7일)를 2~3일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일시 중단하고 4~7일은 정상 운영한다.

목포시와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는 당초 1~5일 개최 예정이던 축제 프로그램을 2~3일은 중단하고 4일부터 6일까지 하루 더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1일 예정이었던 '개막 불꽃쇼'는 행사 마지막 날인 6일 폐막행사와 연계해 추진한다.

장흥군은 지난 3일 오전 7시 강우량 253㎜의 많은 비가 내려 탐진강물이 범람함에 따라 향토 음식관 집기와 행사 물품 등을 긴급하게 옮겼다.

군은 2~3일 프로그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단하고 4일부터 7일까지는 축제를 정상 운영키로 했다. 일부 프로그램은 축제행사정 여건 등으로 인해 변경돼 운영될 수 있다.

신안군은 당초 2~3일 이틀간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서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민어를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과 축제 추진위는 태풍 영향으로 민어축제를 일주일 연기한 9~10일 열기로 결정했다.

신안 민어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민어축제 개최지인 임자도는 여객선을 이용해야 한다"며 "민어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축제를 일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신안지역은 매년 200여척의 어선들이 560t(140억원)의 민어를 잡고 있다. 병어, 새우젓과 더불어 신안을 대표하는 3대 수산물로 꼽힌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전국에서 모인 중·고등학생들이 정읍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 등 동학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되새겼다. 〈담양 청소년수련원 제공〉

담양서 '전봉준 역사캠프' 열려

전국 중·고생 100명 참가

유적지 방문·동학 골든벨 등

동학농민혁명 120주년(2주갑)을 맞아 동학농민 계승사업회와 전봉준 역사캠프 교사모임은 지난 29~31일 전국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전봉준 역사캠프를 진행했다.

'다시 갑오년, 동학과 의병항쟁'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역사캠프는 동학농민군의 최초 전승지인 정읍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에서 입소식을 가진후 남원 교룡산성과 방아치 전투지, 장수 전해산 의병장 기념관을 돌아보았다.

숙소인 담양 청소년수련원(원장 나도팔)에서는 백산창의문 발표대회, 동학 골든벨 대회, 담력훈련 등을 진행했다.

캠프 마지막날에는 임실 운암면 갑오동학혁명 기념비, 정읍 고부면 무명농민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만석보와 전봉준 고택, 백정기의사 기념관을 돌아본 뒤 퇴소식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김민주(학산중 1년)양은 "동학혁명 격전지를 몸소 체험하며 동학 정신이 항일의병 항쟁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남원 '쇠죽 한우' 설명·시식회

친환경 고급육 브랜드화 추진

사료작물·배합기 지원 등 논의

남원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한우고기 브랜드화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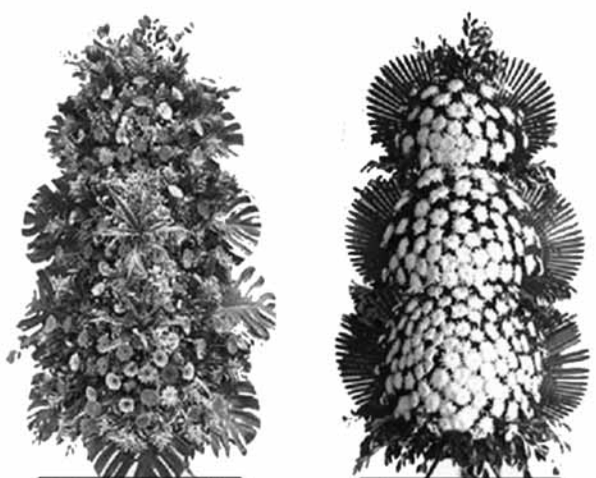
남원시는 지난 31일 주생면 중동리 한우농가에서 '남원 쇠죽 한우' 육성 현장 설명회와 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양질의 사료작물 재배와 사료 배합기(화식기) 지원 등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다.

시는 FTA(자유무역협정)와 국제적인 사료값 상승, 장기적인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사육농가를 돕기 위해 배합사료를 줄이고 친환경 고급육 생산과 유통 및 자체 브랜드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남원 쇠죽 한우' 육성을 위해 1단계로 오는 2018년까지 사료 배합기를 50개소에 지원해 사육규모 확대와 유통물량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NAVER 검색창에 을 쳐보세요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저렴한 공장용지
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물류창고부지 최적
• 면 적 : ① 39,600㎡
② 23,600㎡
• 매 가 : 3.3㎡ 당 90만
◉분할도 매매 가능◉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지 역 : 1종 주거지역
• 지 목 : 전.
• 면적 : 917㎡
• 매 가 : 3.3㎡당 120만
투자 유망
무안군 운남면 내리 확트인 절경의 해변
• 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목 : 전 및 대지,
• 면적 : 13,939㎡
• 매가 : 4억 6천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융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